

현장시선



최 희 숙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2019년 베스트셀러 도서 중 하나인 '90년생이 온다-저자 임흥택'에서 저자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고려하는 항목이 '경력 사항'이라고 말한다. 직무역량을 쌓기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신입사원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하기를 원한다.

경력이 없으니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하니 경력이 없는 악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별한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실무와 거리가 먼 자격증을 취득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과

‘경력 신입’의 아이러니, ‘일학습병행’이 해법

돈을 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넘게 공부한 내용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쉽사리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준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학습병행’은 학교 교육과 기업 실무 사이에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해소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산업현장 실무인재 육성을 위해 독일·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인 도제 제도를 2014년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기업은 청년을 선채용한 후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학교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1년 이상 체계적으로 신입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훈련비 등이 지원되므로 기업은 신입사원에 실무경험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취업준생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느라 시

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곧바로 채용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돼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인재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했고, 학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해 권리를 보장받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습근로자가 훈련과정을 마친 후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으로써 계속 고용이 가능해졌다.

일학습병행법 본격 시행에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일학습병행 사업을 확산 및 발전시키

고자 한다.

도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훈련센터와 학습기업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도내 참여기업과 학습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제주 지역 특화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제주도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다. 현재 90% 이상 호텔로 구성된 제주도 내 학습기업들은 관광객 대폭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단을 비롯한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업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학습병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제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열린마당

청정한 제주 물, 건강한 물



원 담 수
K-water 제주지사장

인간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물’이다. 매년 3월 22일은 1992년 유엔총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세계 물의 날’로 지정, 선포하고 기념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강우패턴이 바뀌고 있다. 강우의 계절적 편중이 심화되고 국지적 집중호우가 잦아져 하천범람, 농지침수, 해안 주택가 침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물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청정한 제주 상수원인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청정한 물은 세계 최고

수질을 자랑한다.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물이다. 이 물을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도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물관리 전문공기업 K-water(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2016년부터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도물을 가정까지 공급하는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관에서 새는 수도물을 줄이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지역부터 시작해 2020년엔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민은 가정에서 수도물 아껴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뿐 아니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청정한 제주 물 보존에 참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청정하고 건강한 제주의 물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물관리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물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과 법 무시한 원 지사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세

○…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활동을 제주도가 언론에 홍보한 것과 관련 최근 제주도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경고 조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민과 법을 무시하는 원 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

민주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을 자신의 사조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비난.

이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에 임하고 싶다면 도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성토, 오온지기자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

○…제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오리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직자 오리고기 구매행사를 추진.

시는 소비부진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 활

성화 차원에서 오는 24일까지 구매를 희망하는 공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할 방침.

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앞으로 시민, 관광객이 믿고 찾는 먹거리 구축 및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돈세탁 아닌 돈소독

○…농협은행 제주본부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영업점과 농·축협에 공급하는 지폐를 소독하며 화제.

제주농협은 돈이 모이는 길목에서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 방역활동을 위한 분사기와 소독약 및 방제용품 등을 구비해 화폐는 물론 영업점 금고까지 수시로 소독.

강승표 본부장은 “자동화기기에서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외화 지폐에 대해서도 원화와 같이 일괄 소독해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얼어붙는 제주경제, 조기 치유책에 최선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의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눈에 띄게 위축되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으로 행사, 모임 자체 분위기에다 소비·판매활동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외적 상황에 맞물린 제주경제 위기는 일부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의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가 92.3(2015=100기준)을 기록해 전달 대비 8.7p 감소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6개월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에다 소비도 크게 위축되면서 향후 경제지표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는 타이밍(시간)이 중요합니

다. 경제활성화 시책이 빠를수록 시장에 주는 효과가 크고,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관광업 위축은 당장 대책마련이 어려

운 상황인 만큼 내수시장을 살릴 소비, 판매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검토중인 정부 편성 코로나19 추경예산 11조7000억원 가운데 제주로 투입되는 350억원에 대한 신속 집행, 자영업자나 실업급여 예외 노동자, 프리랜서 등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도 한 방안으로 의미있습니다.

또 올해 편성된 세출예산 중 상반기내 65% 조기 집행 방침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경제살리기 시책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휴직·실직자, 일용직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현 시점은 고사위기로까지 내몰리는 제주경제 흐름상 전례없는 특단의 조기 치유책으로 소비진작에 나설 때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닌 경제계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지방정부부터 마늘 수급대책 마련하라

제주지역 농민들이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어느 작물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농민이 없으니 말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뭐 합니까.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제값을 못받기 일쏘입니다. 마늘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에도 마늘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은 2만5090ha로 지난해(2만7689ha)보다 9.4%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평년(2만4603ha)보다 웃돌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00ha 규모의 산지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지원액은 3.3㎡당 9340원입니다.

제주에서는 총사업비 36억원이 투입돼 100ha 산지폐기에 들어갔습니다. 마늘 산지폐기는 처음이어서 농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마늘 수매가격도 하락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수매가격이 지난해 1

kg당 3000원에서 2500원, 3.3㎡당 1만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늘로 먹고 사는 제주 농민들이 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마늘 재배 면적은 2014년 2743ha에서 지난해 2024ha로 5년새 720ha(26.3%)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2014년 5만2201t에서 지난해 3만5766t으로 31.5%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별 소용이 없으니 농민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마늘 수매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한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에게 과잉생산의 책임을 떠넘길 겁니까. 중앙정부 대책만 기다릴 일이 아닙니까. 당장 지방정부부터 마늘 수급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주도가 도대체 뭘 하는지, 누구를 위협합니다. 수매가격이 지난해 1

부 고

강의웅(주)용울종합건설 대표이사) 아버지 **신천강공 부전(前 제주산업정보대학 세무회계과 교수·前 학교법인용울교육학원 이사장·향년 79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9일 14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22일(일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23일(월요일) 오전 5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 천왕사

부 인 현 영 자

아 들 강 의 웅 며느리 김 명 희

의 식 송 임 숙

딸 강 경 아 사 위 장 의 한

※ 연락처 : 강의웅 010-4085-6461
강의식 010-4143-8781
장익한 010-2379-1418

부 고

강길승(주)유강미트 대표) 어머니 **김해김씨 원순(향년 72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18일 17시 5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2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21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2층)
▶장 지: 양지공원 → 삼달리 가죽모지

아 들 강 길 승 며느리 김 선 미

범 롱 강 나 영

딸 강 은 주 사 위 강 경 철

※ 연락처 : 강길승 010-8661-4555
강범룡 010-3696-6786
강은주 010-9766-1604
강경철 010-5222-160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권형(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0일

부 인 오 만 순
아 들 고 성 군 며느리 홍 형 숙
용 훈 이 윤 복
딸 고 은 아 사 위 이 희 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병찬(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0일

부 인 고 순 화
아 들 김 창 구 며느리 우 영 영
딸 김 은 영 사 위 김 정 훈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김유이(1976. 11. 10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신동남로 1, 306호(강정동, 스마트하이벨)
상기자는 2020년 1월 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3월 9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드13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언 락 처 : 동두천시 지동로 16, 112동 402호(지평동, 송내주공아파트)

2020년 3월 2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정 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약원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